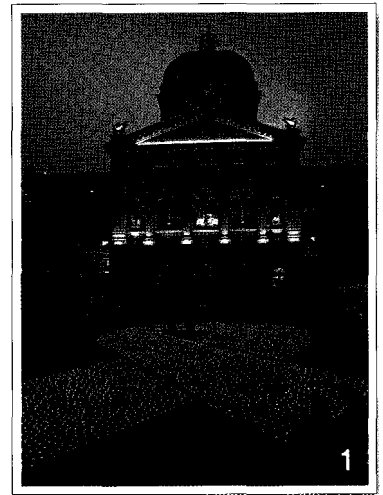


# 여성과의이즈 (Women, Girls, HIV and AIDS)

글\_ 편집실

현재 전세계적으로 에이즈 감염률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여성의 에이즈 감염률이 최근 급증세를 보이고 있어, 여성에 대한 예방홍보 및 교육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UNAIDS는 남성에 비해 신체적으로나 사회문화적으로 HIV에 감염되기 쉬운 여성의 에이즈 감염률을 억제하기 위하여 2004년 세계에이즈 예방 캠페인 주제를 "여성과의이즈(Women, Girls, HIV and AIDS)"로 정하고 세계 각국의 동참을 격려했다. 에이즈의 심각성을 알리고 에이즈로 희생된 이들을 추모하는, 세계에이즈의 날(12월 1일)에 세계 각국들은 다양한 캠페인을 펼쳤다.

**사진1** 1일 스위스 분데스광장에서는 아프리카에서 에이즈로 사망한 6천 명의 희생자들을 위해 레드리본 모양을 형상화한 6천개 초에 불을 밝히고 있다. **사진2,3** 11월 30일 서울 명동에서는 콘돔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콘돔불기, 콘돔올바로 씹우기' 등 다양한 캠페인이 실시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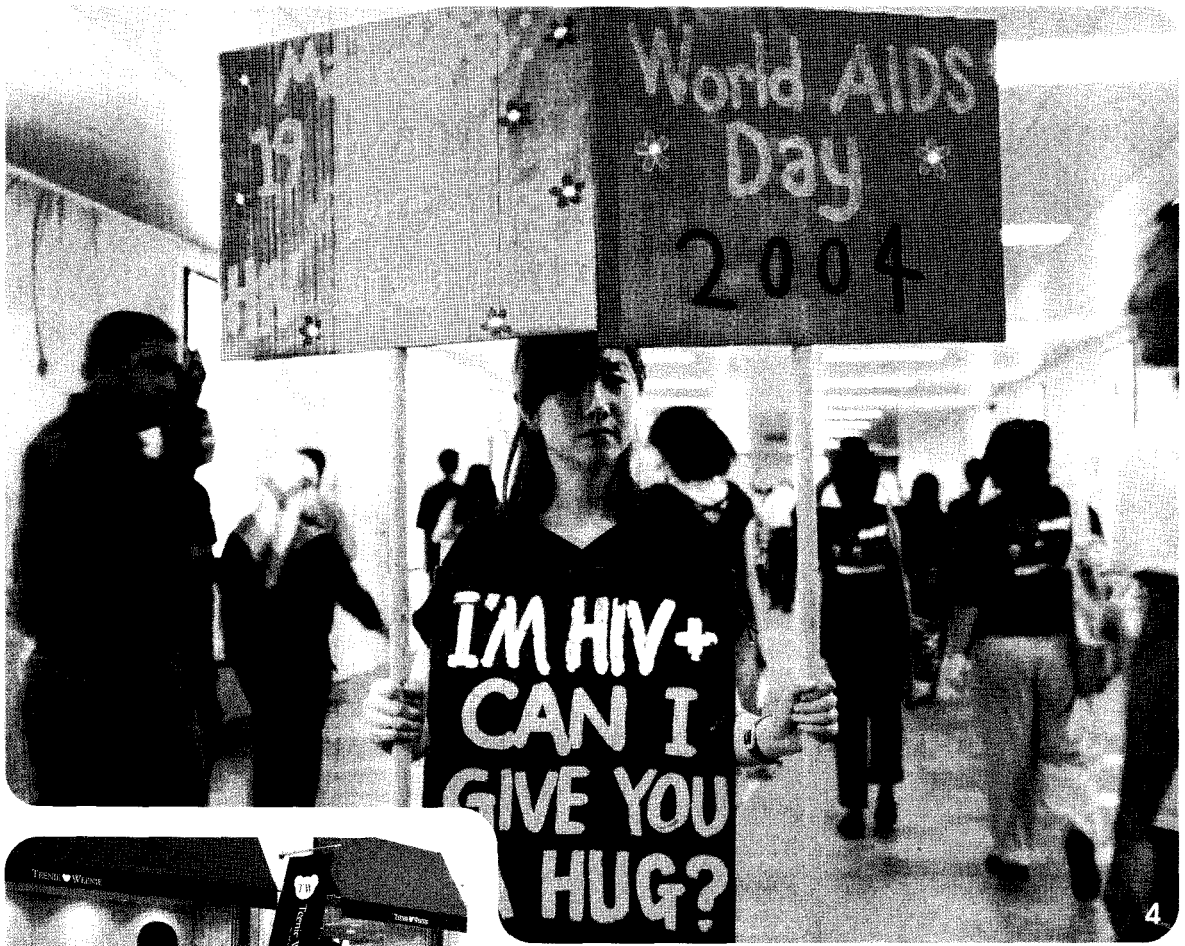


사진4 \_1일 말레이시아 쿨라룸פור의 한 지하철 역에서 에이즈협회의 자원봉사자 한 명이 에이즈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는 포스터를 들고 있다. 포스터에는 “저는 에이즈에 걸렸습니다. 제가 안아도 괜찮을까요?”라고 쓰여 있다. 사진5 \_11월 30일 명동에서 콘돔드레스를 입은 콘돔캐릭터 인형이 거리를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콘돔과 에이즈예방 리플릿을 배포하고 있다. 사진6 \_12월 1일 세계 에이즈의 날을 앞둔 전야에 인도 뉴델리에서는 비정부 가구인 Shaki Vanini 회원의 아이가 초에 불을 밝히고 있다.